

주님의 회복 - 시온을 건축하는 것

12/2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시 48:2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시 50:2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시 125:1

1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시온산 같아라.

---

시 9:11

11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니

시 74:2

2 옛적에 주님께서 사신 회중 곧 주님께서 구속하시어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주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 87:2

2 여호와와 아굽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

엡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계 3:12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21:3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

시온은 다윗왕의 성이자(삼하 5:7) 예루살렘성의 중심으로, 그곳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다(시 9:11, 74:2, 76:2 하, 135:21, 사 8:18). ...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시 48:2, 50:2) 인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이며, 그들은 교회의 고봉, 중심, 높아짐, 강화됨, 풍성함, 아름다움, 실재이다(시 48:2, 11-12, 20:2, 53:6 상, 87:2). 시온인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 완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를 이끌어 온다(계 21:1-3, 16, 22) (시 48:2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축되었다. 예루살렘에는 정상(頂上)이 있는데, 그곳은 시온산이며 그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 성전이 건축되기 약 천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리아산은 시온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창 22:2 대하 3:1). 오늘날 회복의 좋은 상태는 마치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나 거기에 시온이 없다. 신약에서 이기는 이들은 시온에 비유된다. 요한계시록 14 장 1 절에서 십사만사천 명의 이기는 이들은 다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시온산 위에 있다. 이기는 이들 곧 활력 그룹들이 오늘날의 시온이다. 오늘날 나의 부담은 여러분을 도와서 활력그룹이라는 정상, 곧 이기는 이들이라는 시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좋은 교회생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몸의 생활의 실현이나 실행이나 실지나 실재가 거의 없다. 이것이 오늘날 회복의 필요이다....

니 형제님이 주님께 의해 일으켜졌을 때, 형제님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빛을 보았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매우 강조했다. · 우리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하나의 교회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는 것은 물질적인 이유 때문이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온 땅에 흩어져 있으므로 한 지방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많은 지방에서 살아야 하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방별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에베소서 4 장은 한 몸이 있다고 말한다(4 절).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한 떡이며 한 몸이라고 말했다(고전 10:17).

요한계시록에는 결국 하나의 완결이 있다. 이 완결 안에서 일곱 등잔대는 모두 사라진다.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일곱등잔대를 본다. 그러나

마지막 두 장에서 우리는 오직 한 성을 본다. 결국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지나갈 것이다. 오직 몸만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유일한 장막이 되고, 또한 어린양의 유일한 신부가 될 것이다(계 21:2-3).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보다 그리스도의 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내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가르침을 폐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필요하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물질적인 골격을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다. 그러나 몸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시체일 뿐이다. 육신의 몸은 내적인 생명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 면으로 교회는 골격인 몸을 갖고 있지만, 그 골격은 교회의 본성이나 본질이나 요소가 아니다. 에베소서 4 장은 우리에게 교회가 몸이며 이 교회 안에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말한다(4-6 절).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주님은 요소이시며, 그 영은 몸의 본질이다. 이 네 실체가 함께 건축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 장, 25-26 쪽, 3 장, 34-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 소개의 말, 1 장*

12/27 화요일

### 아침의 누림

왕상 8:1

1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인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집안의 인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 앞에 불러 모았다.

계 14:1

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 41:27

27 내가 이전에 시온에게 ‘보아라, 그들을 보아라.’ 하였으니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 주리라.

빌 3:8, 13-14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3:5

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는 시온산이 있었다. 전자는 전체 교회를 예표하고, 후자는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을 예표한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요새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관련된 것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시온을 말했다. 새 예루살렘은 있어도, 시온은 결코 묵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 시온이란 결코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특징들과 생명과 축복과 세워짐은 시온에서 온다. 열왕기상 8 장 1 절을 보면,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언약궤는 시온에 있었다. 시편 51 편 18 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선을 행하시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신다. 시편 102 편 21 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시온에 있고 그분에 대한 찬양은 예루살렘에 있다. 시편 128 편 5 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시고, 선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본다. 시편 135 편 21 절에서 여호와와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시온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 이사야서 41 장 27 절에서 말씀은 먼저 시온에게 선포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전해졌다. 요엘서 3 장 17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된다. (워치만니 전집, 11 권, 부흥보(4), 34 기, 144-14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하나님은 실패한 교회 안에서 시온산에 서 있을 십사만사천 명을 찾고 계신다(계 14 장).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믿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교회 안에 흐르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신다. 주님처럼 피를 흘려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다. 이기는 이들은

교회를 대신하여 이기는 위치에 서고 또한 고난과 수치를 견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은 반드시 스스로 옳다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여 옛 창조에서 나온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끊어 버리고 음부의문들(마 16:18)을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원하는가? 여러분은 주님을 승리하시게 하고 자신을 실패에 두겠는가?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다(고후 10:6). (워치만 니 전집, 11 권, 부흥보(4), 34 기, 145 쪽)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한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에 의한 이러한 생활의 총체이자 총합이다.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며, 결국 이것이 이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게 하여, 그분께서 왕국 시대 안에서 하나님-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점령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게 할 것이다. 그들은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고 완결되었다. 그러므로 오는 왕국 시대에 그들은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계 20:4-6).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사람들은 교회들 가운데서 시온이며, 이기는 이들이며, 또한 활력 그룹들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시온이 없고 오직 예루살렘만 있을 것인데, 이는 자격 없던 모든 성도들이 시온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곧 지성소이다. 요한계시록 21 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일 것임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이 있다. 새 예루살렘의 치수는 입방체의 치수로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만 이천 스타디온이다(16 절). 그것은 바로 지성소인데,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 입방체였기 때문이다(출 26:2-8, 왕상 6:20). (워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5 장, 65-6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11 권, 부흥보(4), 34 기; 워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5 장

12/2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시 24:7-8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러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계 3:20

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고전 9:24

24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딤후 4:7-8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 5:2-5

2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답니다. 저 소리! 내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네요.”

“문을 열어 주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이여. 내 머리가 이슬에, 내 머리채가 밤이슬에 젖었다오.”

3 “ ‘옷을 이미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을 수 있나요? 발을 이미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 수 있나요?’

4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그이 손을 들이밀자 내 속부분들이 그이를 간절히 바랐어요.

5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리려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내 손가락에서는 몰약즙이 문빗장 손잡이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

시편 24 편 3 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이 누구이며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 그 대답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형제들이다. 교회는 오늘날 주님께서 점유하신 하나의 산, 곧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한 바로 그 디딤돌이자 교두보이다. 땅은 주님의 것이지만, 오늘날 땅은 강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탈당한 땅에 주님께서 온 땅을 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는 한 지점인 산이 있다.

시온산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비교

시 24:7). 시편 24 편은 다윗이 시온으로 증거궤를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쓰였다. ... 시온이 있고 성문들과 문들이 있었다. 증거궤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증거궤가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예표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3 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5 장, 81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3 장 20 절은 ... 심지어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주 예수님을 문밖에 두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인 이상 주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 그분께서 계시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분은 문밖에 계실 수 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매우 많이 누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시 24:7)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적절하고 더 완전한 방식으로 교회로 들어오실 수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땅에 다시 오실 수 있겠는가? 만일 교회가, 시온이 절대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다면, 어떻게 땅이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다. 문들을 열자. 우리 모두 그분을 향하여 활짝 열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이 작은 산인 시온산을 완전히 소유하십시오."라고 반응하며 말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3 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5 장, 82 쪽)

우리 모두는 이 고봉에 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고봉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준비하라. 다음 시대에 그 대가는 더 클 것이다. 조만간 여러분은 교회 시대에서나 혹은 오는 왕국 시대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은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사람들이다. 거룩한 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되는 하나의 연합일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신성한 연합을 누리고 그 안에 참여할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사도 바울이 지불했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고봉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커다란 영역으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에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다. 이기는 이들이 곧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계시의 내재적인 실재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바울의 글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바울은 모두가 달리를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와 같이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전 9:24). 바울은 말년에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증언했다(딤후 4:7-8). 나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우리 역시 동일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쉼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5 장, 67-6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3 권, 시편에 계시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5 장

### 12/29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엡 4:23-24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 엡 5:18, 25, 26-27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 빌 1:19-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

에베소서 1:22-23,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정이며(2:19),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인 것을 계시하며 (2:21-22), 더 나아가 교회가 새사람임을 계시한다(2:15, 4:24).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새사람인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단체적인 새 인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 즉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을 실재로서 실재화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는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광 연합된 사람의 영을 크게 강조한다. 에베소서 1 장 17 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라고 말한다. ... 이 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것은 성령과 연합된 사람의 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경륜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4 장 23 절의 영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연합된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이다. 그러한 연합된 영이 우리 생각 안으로 확장되어 우리 생각의 영이 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7 장, 441 쪽, 69 장, 623-62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과거에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현재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미래에 자신의 만족을 위한 배필로서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출 17:6, 고전 10:4, 요 7:38-39, 계 21:6, 22:1, 17). ...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 내지만(요일 1:7, 계 7:14), 생명의 물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엡 5:27) 인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씻어 낸다.... 이것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는 것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일 것이다. 그러한 교회는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이다.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변화되는 것이며, 흠이 없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인 점이나 주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영양 공급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죽음을 당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 우리가

죽이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의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더욱더 죽음을 당하게 된다. 내부의 대적은 우리가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인 말씀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영적 전쟁을 위한 전쟁터는 우리 안에 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 생각 안에 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대적을 죽이는 방법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대적의 요소들이 하나씩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는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 죽음을 당할 때, 주님은 승리하신다. 그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4 장, 496, 498, 501 쪽, 97 장, 886-88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47, 54-55, 59, 69, 94-95, 97 장

12/30 금요일

### 아침의 누림

시 84:3-4, 5-7, 11

3 오, 만군의 여호와님! 저의 왕, 저의 하나님! 주님의 두 단에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새끼 칠 둥지를 찾았습니다.

4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5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6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이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가 정녕 그곳을 복으로 덮습니다.

7 그들은 힘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나아옵니다.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 여호와와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 엡 6:11, 13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 14:1

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시편 84 편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시편 작가의 사랑에 관한 시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되는 것에 관한 시편 73 편 이후의 시들 다음에 이어진다. 우리가 회복되고 복원될 때 (시 80) 하나님의 집은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이 더 깊어진다. (시 84:1 각주 2)

시온을 향한 대로에 있는 사람들은 한 면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시 84:5), 또 다른 면에서는 사탄의 반대를 받고 사탄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사탄이 일으키는 어려움과 박해는 대로를 눈물 골짜기로 만든다. 이 특별한 용어는 시편 작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벗겨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시 84:6 각주 1)

우리가 '눈물'을 의미하는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샘이 되게 하신다(비교 골 1:24, 히 10:34). 이 샘은 그 영이다(요 4:14, 7:38-39). ...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그 영으로 채워지며, 그 영은 우리의 샘이 되신다. (시 84:6 각주 2)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교회생활 안에 들어온 이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이 결국 자신에게 큰 복이 됨을 알게 된다. 이 복은 그 영이다(갈 3:14). 그들이 흘린 눈물은 자신의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샘이 되고, 이 샘은 이른 비 곧 복이신 그 영이 된다. (시 84:6 각주 3)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주할 때 받는 복은 육체 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의 해요 1:4, 8:12)로,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방패(엡 6:11-17)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요 1:14, 17)로, 광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계 21:11, 23)으로 누리는 것이다. (시 84:11 각주 1)

시편 87 편은 먼저 '그분(하나님)의 기초라 불리는 시온의 기초를 말한다(1 절).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예하는 이 신성한 기초(고전 3:11)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예표하는 '거룩한 산들'에 놓인다. 예루살렘은 이 거룩한 산들 위에 세워졌고, 교회의 예표인 시온은 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 건축되었다.

시편 87 편 2 절에서 출입을 위한 시온의 문들은 교통을 나타낸다. 새 예루살렘에 열두 문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교통으로 충만할 것임을 보여 준다... 시온에는 교통을 위한 많은 문들이 있다.

시편 87 편은 모든 성도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밝혀 준다. 5 절은 "시온에 관해서는 이렇게들 말하리라. /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고 /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직접 시온을 세우시리라."라고 말한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시온이 성도들로 가득함을 가리킨다. 6 절은 이 사람' 곧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루터, 칼뱅, 웨슬리, 친첸도르프, 다비, 워치만 니 등 많은 이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 결국 모든 성도들이시고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분으로서(골 3:11) 모든 성도들의 총체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도 거기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계수, 하나님의 기록이다.

시온에서 태어난 모든 성도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시 87:7) 가운데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인 시온에 대해 "내 모든 샘들이 네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 (시편 라이프 스타디, 34 장, 448-45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시편 라이프 스타디, 11, 32-34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14-15 장

12/31 토요일

아침의 누림

시 132:13, 14-16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다네.

14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

15 내가 이곳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며 이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16 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치리라.

시 134:3

3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

시 133:1-3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

시편 132 편 15 절부터 18 절까지에서 여호와께는 시온에 관하여, 그분께서 시온의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실 것이고, 그곳 가난한 이들을 떡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그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실 것이고, 그곳 '신실한 이들'이 환호하며 외칠 것이며, 그곳에서 다윗의 뿔이 돌아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분을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실 것이며,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분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으로 옷 입겠지만 그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빛나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라이프 스타디, 42 장, 55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132 편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와 관련된 일곱 항목, 즉 안식함, 거함, 음식, 옷, 승리의 뿔, 빛 비추는 등불, 빛나는 면류관을 본다. 이 항목들은 교회생활의 정상(頂上)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실 때, 우리 또한 집이 없다. 그분께 만족이 없으실 때, 우리 또한 만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안식하시며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풍부한 양식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합당한 옷과 뿔과 등불과 면류관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의 최고봉인 시온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상황이다.

시편 133 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연합 안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것에 관하여 찬양하는 시이다. 시편 133 편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시편 132 편에 이르러야 한다. 시온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안식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고 연합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갖게 된다. 이것이 교회 집회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을 누릴 것이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시 133:1) 나는 '얼마나 좋고'는 2 절에 있는 기름을 가리키고, '얼마나 즐거운가'는 3 절에 있는 이슬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 수염을 타고 /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시 133:2), 기름이 머리에서 옷단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은 머리와 몸,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좋은 기름으로 발라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시편 133 편 3 절 상반절은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말한다. 이 이슬은 신선할 뿐 아니라 신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 이 은혜가 우리를 적신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시 133:3) ... 교회생활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다.

시편 132 편에서는 교회의 생명을 보고, 시편 133 편에서는 교회의 삶을 본다. 교회의 삶은 가장 높은 삶 곧 형제들이 연합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좋은 기름과 신선한 이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의 마지막인 시편 134 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시이다. ... 이 시는 영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이들, 즉 시온에 있는 이들이 모든 이를 축복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절에서 우리는 복이 시온으로부터, 즉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본다. 교회 역사를 읽는다면, 모든 시대와 모든 세기에 이기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교회에 임했음을 볼 것이다. 몇몇 이기는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 정상 곧 이기는 이들의 위치에 도달한 이들로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치로부터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라이프 스타디, 42 장, 550-5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시편 라이프 스타디, 41-42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3권, 시편에 제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 20-21 장

영원히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를 아름답게 하도록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찬송: 1222 (英) 소리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1/1 주일**

아침의 누림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 48:2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시 50:2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시 110:2-3, 7  
2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3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7 그분은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시므로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라.

사 28:5  
5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 중 남은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주시며

사 60:21  
21 그때 네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되어 땅을

사 61:3  
3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머리 장식을 슬픔 대신 즐거움의 기름을 칠할 한 영 대신 찬양의 겹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의의 테레빈나무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들이라 불리게 하여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2022. 12. 26 ~ 2022. 12. 31**  
*단체로 읽을 말씀: The Economy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ransmission of the Divine Trinity, 3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11권, 부흥보(4), 34기*

1 소리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  
사람들과 함께 행하시는 주 그 행하심을 선포하여라  
오 시온에서 구원이 나와 포로 된 우리 돌이키신다  
이제 우리는 크게 기뻐해 이제 우리는 크게 기뻐해.

2 거룩한 성에서 거하시는 주 이름 얼마나 뛰어나신지  
성도들 찬미 속 보좌에 앉아 주의 기쁨 다 시온에 있네  
지방교회는 주의 움직임 주는 우리의 참된 몫이니  
우리는 어떤 유산 가졌나! 우리는 어떤 유산 가졌나!

3 누가 주의 성막 안에 거하며 극히 거룩한 산에 오르랴  
주 사모하며 맘 정결케 한 이 그분의 얼굴 사모하는 이  
땅의 자녀야 주 얼굴 구해 네 맘을 열라 왕이 오신다  
그가 와 살고 다스리리라 그가 와 살고 다스리리라.

4 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장막  
하나님과 사람 하나 이룬 곳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라  
네 머리 들라 땅의 성들아 네 문을 열라 왕이 오신다  
그가 들어와 다스리리라 그가 들어와 다스리리라.